

사회극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능력 및 자기표현 행동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Socio-drama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Broken Homes*

강문희(Moon Hee Kang)¹⁾

김소연(So Yun Kim)²⁾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o-drama for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self-expression of school children from broken homes. Twenty 4th and 5th grade children from broken homes were sampled from welfare service centers in the Seoul area. Participation was approved by at least one parent.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10 each i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The socio-drama program, design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was conducted in 12 sessions 90 minutes each, twice a week. Results showed that the self-esteem and the self-expression scores of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Positive self-expression behaviors increased, while negative self-expressive behaviors and avoidance behavior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Key Words : 결손가정(broken home), 사회극(socio-drama),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기표현 (self-expression).

I. 서 론

아동기는 신체적·지적·사회심리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가정의 물리적·심리적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방법과 태도

그리고 가정의 안정적 분위기는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은 아동이 외부에서 생긴 갈등을 대화와 신뢰를 통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¹⁾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Moon Hee Kang, Department of Child Study, Seoul Women's University, 126 Kongnung-dong, Nowon-gu, Seoul 139-774, Korea

E-mail : mhkang@swu.ac.kr

장소여야 하는데 자녀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또는 모 중 어느 한쪽이 결손된 가정의 아동들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좌절감과 이에 따르는 열등감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박정옥, 2003). 따라서 성장기의 아동에게 있어서 안정된 가정과 부모의 존재자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이혼과 별거가족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기능적, 형태적으로 결손된 가정의 아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 과거에는 결손가정의 원인으로 부모의 사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별거나 이혼, 미혼모, 자녀 방임 및 유기 등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손 가정의 대표적 원인인 이혼의 경우, 2003년도에는 167,096쌍으로 이혼율은 천 명당 3.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율의 급증은 형태적으로 결손된 가정의 아동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 행동문제와 아동개인의 적응문제 및 심리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손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권영미, 1999)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동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혼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각과 평가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권영미, 1999). 경찰당국이 발간한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 분석집(연합뉴스 : 사회 2004. 10. 20.)’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 가정환경의 변화가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비행 청소년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범죄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청소년의 47.5%는 부모의 이혼, 11.3%는 부친이나 모친의 사망을 경험하고, 16.3%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는 결손가정의 아동일 경우 청소년 범죄 발생 확률이 낮은 저위험군의 아동들보다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결손가정 아동은 정상가정의 아동보다 비자율적이며, 지도성도 낮고, 비사교적, 비수용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은경, 2003).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의 아동이 성인들과 정서적으로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가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표현을 모방하고 학습할 기회가 적은 편이며,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며, 친 사회적인 행동을 익히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생애초기의 부모 또는 모의 부재는 아동 행동의 부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재의 시작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더욱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ller, 1969) 즉, 부친 부재 가정에서 성장한 남아는 일반적으로 지배성과 적응력, 자기 억제 능력이 부족하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수동적인 경향이 있으며(Berk, 2003), 모성 부재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감정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며 감정을 구분별하게 표현하고, 타산적이며 이기적인 성격 특성을 보여주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이기영, 2001; Berk, 2003).

또한 결손가정 아동은 정상가정 아동보다 자기 가치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행동도 비교적 소극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태준, 1992). 이외에도 가정의 결손은 아동에게 학업성적 수준의 하락(Hetherington, 1979; Zill, 1988)과 더불어 분노, 공격성, 억압, 죄의식 감정 유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Hetherington, Cox & Cox, 1982; Zill, 1988)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아개념, 인지능력의 저하, 비사회적 행동(Demo & Acock, 1988)등의 문제까지 수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으며,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또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의 심리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자기표현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등 사회적 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은 아직 미미하며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결손가정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적절치 않은 자기표현 문제의 해소를 위한 관련기술의 훈련이나 대안적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개입이나 훈련의 방법은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등의 일반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리극 형태의 체계적인 개입방법이 일반적인 개별상담의 방법보다 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소용주·강문희, 2004; 김소연, 2000). 심리극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사회극

(Sociodrama)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참여자들이 인간관계의 역할 갈등, 또는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들을 표출함으로써 가능한 문제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해나가는 극형태의 치료방법으로 정의 된다(최현진, 2003). 이러한 사회극의 전개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는 대신, 자발적이고 즉시적인 역할극 등의 행위기법을 사용한다(조성희, 1998). 사회극은 개인의 자아발달과 자기표현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적 기법보다는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김정자, 2001). 즉, 사회극은 안전하고 무비판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집단이 공유한 문제 상황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깊게 재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최현진, 2003).

이러한 사회극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감정정화를 추구하고 개인의 자발성을 발전시키며 대인관계의 갈등해소를 가져오는 원천이 된다(김희경, 1990). 또한 연출되고 있는 사회극 속의 주인공에게는 개인 정신치료의 성격을 띠며 동시에 집단구성원들에게는 상호관계 및 이해를 위한 자아 발견의 계기가 될 수 있다(이정숙, 1991). 사회극은 반복되는 위명업과 함께 실제로 실연을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무대에서 맺게 되는 보조자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다(조성희·

김광운, 1999). 특히, 사회극은 초기 가족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들을 탐색하고 문제가정을 재정립하는데 효과가 있다 (Yalom, 1985). 따라서 사회극에서의 경험은 결손가정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개입방안이 됨으로써 결손가정의 아동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행동을 기르며 더 나아가 그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극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표현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극이 역기능적 가족의 아동을 치료하는 개입방법으로서의 가능성과 의의를 탐색함으로써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극은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2> 사회극은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3> 사회극에 참여한 아동의 자기표현행동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한 W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으로서 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결손가정의 아동 20명이었다. 20명의 아동 중, 성과 학년을 고려하여 10명씩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1에는 사회극 프로그램이 주어졌으며 집단 2는 통제집단으로서 복지관에서 주어지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험집단의 구성원은 남아 5명, 여아 5명이었으며, 이들 중 4학년 4명, 5학년 6명이었고 편부가정의 아동 4명과 편모 가정의 아동 6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통제집단의 경우는 남아 4명, 여아 6명 그리고 4학년 5명, 5학년 5명이었고, 편부가정의 아동 5명과 편모가정의 아동 5명으로 구성되었다.

2004년 9월13일부터 2004년 10월 25일까지 1주 2회 1회당 90분씩 6주동안 총 12회에 걸쳐 실시된 사회극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그리고 12회기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김희화(1998)가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것을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개의 영역(학업 및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의 총 4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며 범위는 49~245점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89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척도의 실

시는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2) 자기표현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Rakos와 Schroeder의 자기표현 평정척도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김성희와 변창진(1980)의 자기표현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한 내용 자체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내용 하위요인이 9문항, 음성언어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묻는 음성 하위 요인이 7문항,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과 같은 비언어 하위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표현 측정에서 얻은 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적용하여 20~100점의 분포를 보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표현능력의 Cronbach's α 값은 .91로 측정되었다. 자기표현능력 척도는 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3) 아동의 자기표현 행동 관찰 기록표

아동의 자기표현을 관찰하기 위한 관찰 기록표는 Holloway와 Reichart-Erickson(1988)에 의한 관찰기록표를 본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반응 평가를 위해 본 연구자가 사회극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극 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한 비디오 녹화가 이루어 졌다. 세부적인 관찰기록항목은 <표 1>과 같다.

아동의 자기표현 행동 관찰을 기록하기 위하여 아동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2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는데, 행동관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자가 실시한 사전교육을 통해 아동의 자기표현 행동유형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행동관찰 평가는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10명의 아동을 2분 관찰, 1분 기록을 반복하여 연속 90분간 관찰하는 시간표집법을 사용하였다. 1주 2회 매 회기당 90분씩 6주간 총 12회기에 걸쳐 실시된 본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표 1> 아동의 자기표현행동 평가를 위한 행동유형 및 내용기준

유 형	내 용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	긍정적인 방법으로 집단구성원과 함께 극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 예) 사회극 역할 맡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의논하기, 역할 나누기, 격려하는 말하기 등
타인관찰 행동	사회극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집단구성원이나 연출자를 관찰하는 행동. 예) 사회극에 참여하는 집단구성원 행동을 관찰하기, 사회극 진행과정을 관찰하기 등
부정적 자기표현 행동	적대적 혹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집단구성원과 함께 활동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 예) 다른 집단구성원을 때리거나 욕하기,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거부행동하기 등
회피행동	사회극 활동과는 무관한 움직임으로 집단구성원이나, 연출자, 또는 사회극 활동자체를 회피하는 행동 예) 사회극활동에 대한 참여나 관찰도 하지 않고 교실 안을 이리저리 배회하기, 교실밖으로 나가기, 사회극 상황에서 이탈하는 행동 보이기, 친구와 사회극에 관련 없는 대화를 나누기 등

아동의 자기표현행동 관찰목록내용은 그 빈도를 합산하여 특정 행동의 빈도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 회기마다 사회극 활동이 끝난 후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여 관찰자간의 관찰기록 일치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2회기동안 이루어진 관찰기록자간 일치도는 평균 .94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 그리고 자기표현행동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극프로그램의 구성목적과 내용 그리고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프로그램은 사회극의 기본적인 진행방식을 기초로 하여 결손가정 아동이 자기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자기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본 프로그램은 결손가정 아동의 자발적인 자기표현능력을 증진시킨다.

(3) 본 프로그램은 결손가정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표현행동을 증진시킨다.

(4) 본 프로그램은 결손가정 아동의 집단 내에서의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킨다.

(5) 본 프로그램은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

위에서 제시한 사회극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전체 12회기를 초기단계, 증기단계, 종결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 초기 단계(1~3회기)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의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사회극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여자 상호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집단의 응집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초기단계의 마지막 회기인 3회기에는 좀 더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단화를 그리면서 참여 아동이 다른 집단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를 체험하도록 한다. 또한 집단 참가자들 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밀감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2) 증기 단계(4~10회기)

프로그램 증기단계에서의 목표는 사회극 참여 아동이 자기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일곱 번의 사회극회기로 구성되는 증기단계는 전체 12회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의 약 60%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사회극 실행단계로 이루어진다.

증기 단계 말에 접근하게 되면서 아동은 사회극에서 체험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감정표출과 자기표현행동을 함으로써 감정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증진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극 기법은 일반적으로 많은 아동이 이미 알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화속의 주제를 통하여 사회관계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구성원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도한다. 이를 위해 사회극에서 역할 바꾸기와 이중자아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이 접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두려움이나 분노 등의 정서적 경험들을 바람직한 방법과 행동으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사회극을 통해 이루어진 자기표현능력과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연계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이 닦아온 것과 관련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며 그동안 쌓아올린 구성원간의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이 바람직한 자기표현능력과 행동을 일반적인 대인관계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종결 단계(11~12회기)
프로그램 종결 단계에서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이상의 단계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단계별 사회극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회기	단계	사회극 활동	목 적	활동내용 및 방법
1	초기 단계	· 사회극 활동의 이해를 위해 사회극 소개 ·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면담	· 사회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실시이전에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 정도를 평가. · 프로그램진행자와의 좋은 관계 형성	· 도입 활동실시 · 사회극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진행자와의 면담
2		· 자기소개하기 · 타 구성원의 자기소개 듣기 · 자발적인 자기표현 시도하기	·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 · 집단구성원간의 응집력을 함양. · 자기표현력 증진을 도모. · 사회극에서의 자발적 활동의 중요성 인식. · 타인의 생각과 감정표현에 대한 민감성 증진.	· 도입 활동실시. · 자기 소개지를 작성하고 발표. · 집단 내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상의하여 결정.
3		· 자기표현하기 : · 공동화 그리고 자기의견 발표하기	· 참여자들 간의 긴장감을 해소. · 공동 활동을 통해 집단구성원간의 관심과 친밀감을 촉진. ·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표하는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자기표현능력 증진을 도모 . · 자기의 표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기회의 제공.	· 도입 활동 실시 · 도화지에 집단원이 서로 말없이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려서 완성. · 완성 후 공동화에 각자 생각하는 제목을 붙이고 다른 집단원들 앞에서 자기가 만든 제목과 그 이유를 발표.
4	중기 단계	· 자기 표현하기 I : · <미운아기오리> 역할극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기	· 사회극의 주제를 아동이 잘 알고 있는 동화의 주제를 활용. · 동화속의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인식,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증진.	· 도입 활동 실시. · <미운아기오리>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선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즉흥적인 사회극을 꾸미고 발표. · 극이 끝난 후 느낌을 공유.

<표 2> 계속

회기	단계	사회극 활동	목 적	활동내용 및 방법
5	중기 단계	·자기 표현하기Ⅱ : ·<신데렐라>의 역할극을 통해 자기 표현하기	·사회극의 주제를 아동이 잘 알고 있는 동화의 주제를 활용. ·동화속의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인식,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증진.	·도입 활동실시. ·<신데렐라>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등장인물의 역할을 선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즉흥적인 사회극을 꾸미고 발표. ·극이 끝난 후 느꼈던 점, 바꾸고 싶었던 점을 이야기 나눔.
6		·감정 표현하기 I	·억압되었던 감정(분노, 억울함, 우울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바람직한 대체 방법을 알고 익히게 함.	·도입 활동 실시.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 후 주제를 선정. ·집단에서 선정된 주제로 사회극을 꾸민 후 발표. ·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 대안적 행동을 탐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
7		·감정 표현하기 II	·감정 표현 및 역할 바꾸기 활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함.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협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함. ·적절한 감정표현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름.	·도입 활동 실시.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 후 주제를 선정. ·집단에서 선정된 주제로 즉흥적인 극을 꾸민 후 발표. ·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 대안적 행동을 탐색.
8		·가족과 나 I : · 부모님의 화해1 · 부모님의 화해2	·나와 부모 등 결손된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게 함. ·집단 내에서 그 해결방법을 탐색 ·해결방안의 현실적 실천을 위한 대안 모색.	·도입 활동 실시. ·마술가게 활동을 통하여 가족관계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 후 역할을 배정하고 극을 꾸며 발표. ·집단원간의 느낌을 공유.
9		·보호받고 싶은 나	·집단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를 조망. ·자기를 표현하는 행동이 구성원들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기회 제공. ·여러 사람앞에서 당당히 자기문제를 표현하여 자신감을 갖게 함.	·도입 활동 실시. ·마술가게 활동을 통하여 집단의 주제를 선정 후 역할을 배정하고 극을 꾸며 발표. ·집단원간의 느낌을 공유.
10	·가족과 나 II : 가족 안에서의 나의 모습	·가족과 나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가족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내가 가족에서 해야 할 일을 인식. ·가족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결손가정으로 인한 위축감과 자기비하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진.	·도입 활동 실시. ·이야기나누기를 통하여 집단의 주제를 선정. ·극을 통하여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대안행동을 탐색.	

〈표 2〉 계속

회기	단계	사회극 활동	목 적	활동내용 및 방법
11	종결 단계	·나와 또래관계 : 집단작업하기 ·프로그램종료를 준비하기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집단구성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관심과 친밀감을 인식. ·또래와의 집단활동을 통하여 또래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 ·자유로운 자기표현능력을 증진.	·도입활동 실시. ·또래관계와 관련된 주제의 사회극이 끝난 후 도화지에 각자의 느낌을 그린 후 게시판에 붙임. ·또래와의 집단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로 집단원간의 느낌을 공유.
12		·종료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실시	·사회극 프로그램 진행 동안의 느낀 점을 표현.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을 평가.	·도입활동 실시. ·사후 검사 실시. ·사회극 프로그램을 마치며 그 동안의 느낌을 개별 인터뷰.

3)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본 사회극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의 실시기간과 집단의 규모, 프로그램 진행자 요인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90분에 걸쳐 진행되는 매 회기마다 먼저 10분내외의 시간을 사회극 준비시간으로 정하고 곧 이어 전개될 본 사회극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마음과 몸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가진다. 이 준비시간에는 집단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하고 이후 사회극에서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간단한 게임들과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게임과 더불어 집단구성원이 오늘 하루 학교나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2) 10분 내외의 준비시간을 거쳐 사회극 프로그램의 본 활동을 전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진행자가 판단하게 되면 각 회기의 목적에 따라 준비된 활동을 진행한다. 진행자는 집단구성원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집단이 직면한 문제

를 개방하고 해결방법을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제를 선정하고, 장면을 설정하며, 역할을 배정하고, 극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역할연기를 하게 한다. 진행자는 사회극을 통하여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감정뿐 아니라 혼란스럽거나 모호한 상태 등 어떤 감정 상태든지 아동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도록 하고, 역할연기나 역할 교대를 통하여 현재 행동을 보완해 줄 대안적 행동을 익히며 상황에 맞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준다. 또한 진행자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보조자아의 역할을 통해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역할연기, 역할 교환, 이중자아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본 프로그램의 90분 중 60분 이상을 본 활동 시간으로 할애한다.

(3) 사회극 프로그램의 마지막 15분 내외의 시간은 정리시간으로 운영한다. 이 시간은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각 역할에 참여하였던 참가자들이 역할을 하는 동안 느꼈던 바를 이야기 하는 시간이다. 역할을 하는 동안 생각난 것이나 그 역할을 통해서 배우거나 깨닫게 된 점 등을 서로 이야기 하고 난 후 역할을

벗는다. 두 번째로 집단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다. 극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가 떠올렸던 자신의 기억, 사건 감정 등을 나누기하는 시간이다. 이때는 진행자와 보조자도 함께 참여하여서 감정을 공유한다. 셋째로, 주제에 대한 나누기이다. 처음 설정했던 주제와 사회극 전개과정에서 각자가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된 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다. 이때에는 어떤 개인적 관점이나 의견이라도 수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는 주로 학습적 교육적 측면의 시간인데, 새로운 행동을 위한 계획, 대안적 해결방안, 혹은 새로운 시연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극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 문제 1과 2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척도와 자기표현능력 척도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프로그램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3은 관찰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관찰 자료의 분석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된 개별 구성원의 행동이 회기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과정을 관찰하여 기술하고 수량화였다. 관찰 자료 분석에는 12회에 걸친 사회극 프로그램 진행내용과 Video녹화자료, 보조 연구자의 의견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Video자료는 매회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참여한 집단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여 녹화한 것으로 보조연구자 중 1명이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녹화하였다. 이 자료는 구성원들의 반응과 변화를 관찰한 것으로 사회극과정에서 보인 언어적 반응 외에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 표정, 말투, 태도 등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활용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사회극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사회극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알아보고, 실험집단의 처치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

하위척도	구 분	N	M	SD	t	p																																																																										
학업 및 전반적	실험집단	10	25.50	7.61	-.309	.761																																																																										
	통제집단	10	26.60	8.30			친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28.20	6.62	-.500	.623	통제집단	10	29.70	6.78	가 정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80	3.35	-.272	.789	통제집단	10	23.20	3.22	신체외모 자 아	실험집단	10	22.70	7.08	-1.174	.256	통제집단	10	26.10	5.80	성 격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10	3.44	1.168	.258	통제집단	10	20.00	4.52	신체능력 자 아	실험집단	10	19.40	5.23	-.455	.655	통제집단	10	20.40	4.57	교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19.30	5.14	1.087	.291	통제집단	10	17.20	3.29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친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28.20	6.62	-.500	.623																																																																										
	통제집단	10	29.70	6.78			가 정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80	3.35	-.272	.789	통제집단	10	23.20	3.22	신체외모 자 아	실험집단	10	22.70	7.08	-1.174	.256	통제집단	10	26.10	5.80	성 격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10	3.44	1.168	.258	통제집단	10	20.00	4.52	신체능력 자 아	실험집단	10	19.40	5.23	-.455	.655	통제집단	10	20.40	4.57	교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19.30	5.14	1.087	.291	통제집단	10	17.20	3.29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10	163.2	25.43								
가 정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80	3.35	-.272	.789																																																																										
	통제집단	10	23.20	3.22			신체외모 자 아	실험집단	10	22.70	7.08	-1.174	.256	통제집단	10	26.10	5.80	성 격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10	3.44	1.168	.258	통제집단	10	20.00	4.52	신체능력 자 아	실험집단	10	19.40	5.23	-.455	.655	통제집단	10	20.40	4.57	교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19.30	5.14	1.087	.291	통제집단	10	17.20	3.29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10	163.2	25.43																			
신체외모 자 아	실험집단	10	22.70	7.08	-1.174	.256																																																																										
	통제집단	10	26.10	5.80			성 격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10	3.44	1.168	.258	통제집단	10	20.00	4.52	신체능력 자 아	실험집단	10	19.40	5.23	-.455	.655	통제집단	10	20.40	4.57	교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19.30	5.14	1.087	.291	통제집단	10	17.20	3.29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10	163.2	25.43																														
성 격 적 자 아	실험집단	10	22.10	3.44	1.168	.258																																																																										
	통제집단	10	20.00	4.52			신체능력 자 아	실험집단	10	19.40	5.23	-.455	.655	통제집단	10	20.40	4.57	교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19.30	5.14	1.087	.291	통제집단	10	17.20	3.29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10	163.2	25.43																																									
신체능력 자 아	실험집단	10	19.40	5.23	-.455	.655																																																																										
	통제집단	10	20.40	4.57			교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19.30	5.14	1.087	.291	통제집단	10	17.20	3.29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10	163.2	25.43																																																				
교사관련 자 아	실험집단	10	19.30	5.14	1.087	.291																																																																										
	통제집단	10	17.20	3.29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10	163.2	25.43																																																															
전 체	실험집단	10	160.0	25.20	-.283	.781																																																																										
	통제집단	10	163.2	25.43																																																																												

<표 4>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영역	M (SD)	사전-사후 대응차		t	df	p		
		M	(SD)					
실험집단(N=10)	사전검사	160.00	(25.20)	-29.70	(28.89)	-3.251	9	.010**
	사후검사	189.70	(24.68)					
통제집단(N=10)	사전검사	163.20	(25.43)	2.90	(3.41)	2.686	9	.025*
	사후검사	160.30	(22.92)					

* $p < .05$ ** $p < .01$

<표 3>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은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160이었으며, 통제집단은 평균이 163.2이었다. 자아존중감은 독립표본 t 검증에서 t 값이 -.283으로 두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자아존중감은 사회극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두 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두 집단은 자아존중감에서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으며 각 하위척

도간의 비교에서도 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사회극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보여준 자아존중감 검사점수간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표 4>를 보면,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평균은 160, 사후검사 평균은 189.7이었고,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비

<표 5>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영역	N	M (SD)	사전-사후 대응차		t	p		
			M	(SD)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사전검사	10	25.50	(7.61)	-10.50	(8.33)	-3.986	.003**
	사후검사	10	36.00	(5.77)				
친구관련 자아	사전검사	10	28.20	(6.62)	-6.50	(8.65)	-2.374	.042*
	사후검사	10	34.70	(7.27)				
가정적 자아	사전검사	10	22.80	(3.35)	-2.20	(5.65)	-1.231	.250
	사후검사	10	25.00	(5.01)				
신체외모 자아	사전검사	10	22.70	(7.08)	-5.60	(5.71)	-3.096	.013*
	사후검사	10	28.30	(3.40)				
성격적 자아	사전검사	10	22.10	(3.44)	.30	(5.01)	.189	.854
	사후검사	10	21.80	(3.85)				
신체능력 자아	사전검사	10	19.40	(5.23)	-4.80	(7.56)	-2.005	.076
	사후검사	10	24.20	(3.70)				
교사관련 자아	사전검사	10	19.30	(5.14)	-.40	(3.77)	-.335	.745
	사후검사	10	19.70	(3.56)				

* $p < .05$ ** $p < .01$

〈표 6〉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영역	영역	N	M (SD)	사전-사후	t	p
				대응차		
				M (SD)		
학업 및 전반적 자아	사전검사	10	26.60 (8.30)	.90 (1.19)	2.377	.041*
	사후검사	10	25.70 (7.66)			
친구관련 자아	사전검사	10	29.70 (6.78)	-.50 (1.08)	-1.464	.177
	사후검사	10	30.20 (7.02)			
가정적 자아	사전검사	10	23.20 (3.22)	1.60 (2.17)	2.311	.045*
	사후검사	10	21.60 (3.68)			
신체외모 자아	사전검사	10	26.10 (5.80)	-.21 (1.04)	-.513	.556
	사후검사	10	26.20 (5.76)			
성격적 자아	사전검사	10	20.00 (4.52)	.20 (1.03)	-.612	.555
	사후검사	10	20.20 (4.46)			
신체능력 자아	사전검사	10	20.40 (4.57)	1.10 (1.37)	2.538	.032*
	사후검사	10	19.30 (3.83)			
교사관련 자아	사전검사	10	17.20 (3.29)	-.20 (1.01)	-.622	.554
	사후검사	10	17.40 (3.16)			

* $p < .05$

교에서 평균값의 대응차는 -29.70, 표준편차의 대응차는 28.8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t 값은 -3.251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 평균은 163.2, 사후검사 평균은 160.3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비교에서 평균값의 대응차는 2.90, 표준편차의 대응차는 3.41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t 값은 2.686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극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경우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고, 사회극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극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하위 척도별 변화는 다음의 <표 5>와 <표 6>에 나타나있다. 실

험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중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승을 볼 수 있었으며, 친구관련 자아와 신체외모 자아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극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학업 및 전반적 자아와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 6>을 보면 통제집단에서는 학업 및 전반적 자아와 가정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실험집단의 상승경향과 대조된다.

2. 사회극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사회극이 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을 증진시키는

<표 7> 자기표현능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

하위척도	구분	N	M	SD	t	p
말한 내용 속의 자기 표현	실험집단	10	27.80	7.13	.217	.831
	통제집단	10	27.20	5.05		
음성 속의 자기 표현	실험집단	10	22.00	9.17	.646	.526
	통제집단	10	19.60	7.33		
신체 언어속의 자기 표현	실험집단	10	12.60	6.20	.827	.419
	통제집단	10	10.60	4.47		
전 체	실험집단	10	62.40	19.06	.642	.529
	통제집단	10	57.40	15.60		

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의 자기표현능력의 수준을 알아보고, 실험집단의 처치후의 자기표현능력의 수준을 비교해보았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능력을 비교한 <표 7>에 의하면 실험집단은 자기표현능력평균이 62.40이었으며, 통제집단은 57.40이었다. 자기표현능력은 독립 표본 t 검증에서 두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사회극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두 집단 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은 비슷한 수준이어서 두 집단은 자기표현능력에서 동질집단이며, 각 하위척도간의 비교에서도 두 집단 사이의 동질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8>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표현능력을 사전-사후 검증한 결과이다. <표 8>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자기표현능력의 사전검사 평균은 62.40이며, 사후검사 평균은 75.60이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자기표현능력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평균값의 대응차는 -13.20이며, 표준편차의 대응차는 13.82로 나타났다. t 값은 -3.020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 평균은 57.40, 사후검사 평균은 63.40으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평균값의 대응차는 -6.00이며, 표준편차의 대응차는 14.49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t 값은 -1.30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실험집단의 자기표현능력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사회극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자기표현능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극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 하위 척도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9>에 의하면 실험집단은 자기표현능력의 하위 척도 중 말한 내용 속의 자기표현과

<표 8> 자기표현능력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영역	구분	M	(SD)	사전-사후	t	df	p
				대응차			
				M (SD)			
실험집단(N=10)	사전검사	62.40	(19.06)	-13.20 (13.82)	-3.020	9	.014*
	사후검사	75.60	(13.34)				
통제집단(N=10)	사전검사	57.40	(15.60)	-6.00 (14.49)	-1.309	9	.223
	사후검사	63.40	(6.13)				

* $p < .05$

〈표 9〉 실험집단의 자기표현능력 하위척도 사전-사후 검증결과

하위요인	참가여부	N	M (SD)	사전-사후 대 응 차		t	p
				M	(SD)		
말한 내용 속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10	27.80 (7.13)	-5.20 (6.90)		-2.380	.041*
	사후검사	10	33.00 (6.79)				
음성 속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10	22.00 (9.17)	-3.60 (6.88)		-1.654	.133
	사후검사	10	25.60 (5.89)				
신체 언어 속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10	12.60 (6.20)	-4.40 (4.32)		-3.217	.011*
	사후검사	10	17.00 (2.53)				

* $p < .05$

〈표 10〉 통제집단의 자기표현능력 하위척도 사전-사후 검증결과

하위요인	참가여부	N	M (SD)	사전-사후 대 응 차		t	p
				M	(SD)		
말한 내용 속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10	27.20 (5.05)	.50 (4.47)		.353	.732
	사후검사	10	26.70 (2.94)				
음성 속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10	19.60 (7.33)	-3.60 (7.32)		-1.555	.154
	사후검사	10	23.20 (3.64)				
신체 언어 속의 자기표현	사전검사	10	10.60 (4.47)	-2.90 (4.43)		-2.068	.069
	사후검사	10	13.50 (1.64)				

신체 언어속의 자기표현에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상승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표 10>에 나타난 통제집단의 결과는 자기표현능력의 하위척도에서 사전과 사후 검사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극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 집단이었으나 사회극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에 실험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하위 척도인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내었고, 친구관련자아와 신체외모 자아에서는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내었다. 자기표현

능력 또한 사회극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에 실험 집단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사회극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 증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이동행동관찰을 통한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 과정 분석

사회극을 통하여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집단 내 자기표현 행동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 자기표현, 부정적 자기표현, 관찰, 회피 활동을 중심으로 집단 내 개별

<표 11>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에 대한 Friedman test 결과

회기	아동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례 F	사례 G	사례 H	사례 I	사례 J	M(SD)	단계별 M(SD)	df	X ²	
초기	1	10	3	5	3	5	10	8	7	12	15	7.8 (3.77)	6.27 (2.55)	2	20.00***
	2	7	2	4	2	4	6	8	8	6	12	5.9 (3.07)			
	3	8	2	4	2	2	4	6	4	9	10	5.1 (3.00)			
중기	4	12	8	8	6	6	14	16	8	6	10	9.4 (3.53)			
	5	4	6	6	10	4	10	10	2	9	10	7.1 (3.07)			
	6	12	6	10	4	2	4	9	8	8	14	7.7 (3.77)			
	7	8	8	8	6	12	16	17	17	15	19	12.6 (4.77)			
	8	12	13	9	6	10	15	15	15	16	16	12.7 (3.40)			
	9	9	17	10	16	16	13	19	16	16	18	15.0 (3.30)			
	10	12	15	6	3	8	10	16	10	14	18	11.2 (4.71)			
종결	11	14	13	10	10	17	15	18	17	16	20	15.0 (3.30)	14.35		
	12	15	16	7	9	16	14	12	15	15	18	13.7 (3.40)	(3.33)		

****p*<.001

아동의 행동변화 내용을 관찰하였다. 관찰된 행동은 관찰기록표에 하나의 행동을 표현할 때 마다 1점으로 기록하였다. <표 11>은 각 사례별로 사회극 진행과 함께 긍정적 자기표현행동이 관

찰된 내용의 분석이다.

<표 11>에 의하면 사회극 프로그램의 초기·중기·종결단계의 3단계에 걸쳐 측정된 긍정적 자기표현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집단구

<표 12> 타인관찰 행동의 변화에 대한 Friedman test 결과

회기	아동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례 F	사례 G	사례 H	사례 I	사례 J	M(SD)	단계별 M(SD)	df	X ²	
초기	1	5	5	5	7	5	10	11	8	8	10	7.4(2.37)	6.70 (2.55)	2	17.89***
	2	7	5	6	6	3	5	8	4	8	7	5.9(1.66)			
	3	6	6	4	3	3	5	10	8	10	13	6.8(3.36)			
중기	4	5	4	4	2	4	6	6	7	7	10	5.5(2.22)			
	5	6	8	7	8	8	8	10	12	10	12	8.9(2.02)			
	6	8	5	8	6	5	10	12	12	12	12	9.0(2.98)			
	7	10	12	10	8	10	13	13	14	15	15	12.0(2.40)			
	8	10	12	13	12	16	13	15	15	16	10	13.2(2.25)			
	9	10	13	13	10	15	15	16	17	12	15	13.6(2.41)			
	10	11	10	10	9	16	9	13	15	18	17	12.8(3.46)			
종결	11	9	14	10	10	13	10	15	12	10	18	12.1(2.88)	11.90		
	12	10	10	10	13	10	10	16	13	11	14	11.7(2.16)	(2.49)		

****p*<.001

<표 13> 부정적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에 대한 Friedman test 결과

회기	아동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례 F	사례 G	사례 H	사례 I	사례 J	M(SD)	단계별 M(SD)	df	X ²
초기	1	8	2	3	2	5	1	0	0	0	1	2.2(2.57)	2.20 (2.72)	2	13.72***
	2	6	0	1	5	4	2	1	0	0	0	1.9(2.28)			
	3	10	6	2	2	5	0	0	0	0	0	2.5(3.44)			
중기	4	10	8	0	10	5	3	3	0	0	0	3.9(4.15)	2.27 (3.88)		
	5	5	3	0	0	6	0	0	0	3	0	1.7(2.36)			
	6	22	2	3	7	0	0	0	0	0	0	3.4(6.92)			
	7	10	0	0	3	7	0	2	1	5	0	2.8(3.49)			
	8	12	3	0	4	6	0	0	0	0	0	2.5(3.98)			
	9	7	0	0	4	0	0	0	0	1	0	1.2(2.39)			
	10	3	0	0	1	0	0	0	0	0	0	0.4(0.97)			
종결	11	4	0	0	1	0	0	0	0	0	0	0.5(1.27)	0.30		
	12	1	0	0	0	0	0	0	0	0	0	0.1(0.32)	(0.92)		

***p<.001

성원들의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극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의 행동 유형중 사회극에 참가하는 집단구성원의 행동과 사회극 진행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초기·중기·종결단계의 3단계에 걸쳐 측정된 타인관찰 행동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집단구성원들의 행동 변화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극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들의 사회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극 프로그램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부정적 자기표현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 나타나 있다.

<표 13>에서 초기·중기·종결단계의 3단계에 걸쳐 측정된 부정적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를 보면, 집단구성원들의 부정적 자기표현 행동의

변화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아동의 부정적인 자기표현행동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에 대한 때리기 행동이나, 욕하기와 같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이 프로그램 시작초기보다 종결회기로 닦아갈 수록 현저히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기표현행동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자기표현 행동 중 회피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 14>에서 초기·중기·종결단계의 3단계에 걸쳐 측정된 아동의 사회극 집단 내에서의 회피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집단구성원들의 회피 행동의 변화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참여 아동이 사회극 활동에 참여나 관찰도 하지 않고 실내를 배회하거나 또는 실외로 나가거나 사회극 집단을 이탈하기도 하고, 옆의 친구에게 장난을 치거나 활동과 무관한 말을 걸어 사회극을

〈표 14〉 회피 행동의 변화에 대한 Friedman test 결과

회기	아동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례 F	사례 G	사례 H	사례 I	사례 J	M (SD)	단계별 M(SD)	df	X ²
초기	1	8	2	4	7	5	2	2	4	4	1	3.9(2.28)	4.97 (3.40)	2	19.00***
	2	10	3	2	6	8	4	4	3	2	0	4.2(3.01)			
	3	9	10	9	12	6	7	11	1	2	1	6.8(4.16)			
중기	4	8	10	5	14	5	0	0	6	0	3	5.1(4.65)	4.69 (3.53)		
	5	7	7	6	10	9	5	2	12	7	3	6.8(3.05)			
	6	5	10	5	17	10	8	7	6	7	4	7.9(3.78)			
	7	5	5	4	10	1	7	5	6	4	5	5.2(2.30)			
	8	3	2	5	5	3	3	1	3	4	3	3.2(1.23)			
	9	6	1	1	8	3	6	2	1	4	1	3.3(2.58)			
	10	2	0	3	4	1	3	0	0	0	0	1.3(1.57)			
종결	11	0	1	2	5	0	0	1	2	2	2	1.5(1.51)	1.95 (1.54)		
	12	4	3	2	4	3	2	0	4	2	0	2.4(1.51)			

****p*<.001

방해하는 등의 행동이 프로그램 회기가 진행되면서 현저히 감소하면서 동시에 사회극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극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을 증진하고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극은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즉, 사회극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상승되었음이 나타났다. 각 하위 척

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 및 전반적 자아, 그리고 친구관련자아와 신체외모 자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극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극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기술이나 또래관계의 친밀함을 돕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하위척도 중 가정적 자아와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자아, 교사관련 자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적 자아는 부모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교사 관련 자아 역시 학교 교사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영향력이 더욱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얻어낸 이러한 결과는 사회극이 아동에게 긍정적 자아를 갖게 하고, 정서의 순화를 통해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김소연(2000)의 연구결과와 사회극의 감정정화가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봉수연(1999)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민은정(2000)의 심리극이 초등학교의 자기 가치감, 일반적 자기존중감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결손가정의 아동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이나 또래관계 등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극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사회극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구성원들의 자기표현능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척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말한 내용 속의 자기표현’과 ‘신체 언어속의 자기표현’에서 특히 높은 상승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사회극은 아동의 자기표현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극 기법을 활용한 집단 상담이 초등학교 학생의 음성적, 신체 언어적 자기표현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김혜정(2004)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극이 일반적인 초등학교 아동뿐만 아니라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셋째, 사회극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자기표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에서 관찰된 개별아동의 자기표현 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즉, 아동의 사회극참여 행동유형을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 타인 관찰 행동, 부정적 자기표현 행동 및 회피 행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극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서 집단 초기 단계에 비하여 종결 단계에서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과 타인관찰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극이 진행될수록 부정적 자기표현 행동과 회피 행동이 유의미한 감소를 볼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도표화하기는 어려우나 사회극 프로그램과정에서 보여주는 아동의 자기표현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극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을 배회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등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던 아동들도 회기가 지날수록 사회극에 흥미를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다거나, 처음부터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이 많았던 아동일수록 사회극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욱 활발한 긍정적 자기표현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사회극 참여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다른 집단구성원들의 프로그램 집중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극집단에서 아동이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기표현행동이 프로그램 후반부에 와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부정적 자기표현 행동이 공격적이지 않고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표현 행동이라고 볼 때 심리극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윤은주(1997)의 연구결과와 심리극

기법을 활용한 집단 상담이 대인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권선희(199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극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사회극을 활용한 집단상담의 활용이 결손가정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제한점을 보완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극 프로그램 후의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사회극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지속을 위한 추후조사와 이에 따르는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결손가정의 아동은 가정환경이 취약하므로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되기 어렵다. 결손가정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결손가정 아동이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선희(1995). 집단 상담에서 역할연기 기법이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희·변창진(1980). 주장훈련 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3(1), 경북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김소연(2000). 사회극이 아동의 외로움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자(2001). 역할놀이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증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준(1992).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적응요인 및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정(2004). 심리극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기표현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희경(1990). 심리요법 기술. 서울: 교문사.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민은정(2000). 심리극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욱(2003).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봉수연(1999).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심리극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소용주·강문희(2004). 심리극을 활용한 사회기술훈련이 흡연청소년의 자기주장력 및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12호
 연합뉴스(2004, 10, 20). “청소년 비행, 가정환경에 큰 원인”. 사회면.
 윤은주(1997). 심리극을 통한 집단상담이 아동의 공격성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기영(2001).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양부모 동거가정 자녀와 편부모 동거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

-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숙(1991).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기 자녀의 갈등.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경(2003). 결손가정아동의 정서·행동에 대한 연구-사회인구학적변인 및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희(1998) 교내 특별활동 사회극 프로그램과 기대 효과. 한국 사이코드라마 학회지 창간호.
- 조성희 · 김광운 공역(1999). 사회극을 통한 우리들의 만남. 서울 : 학지사.
- 최현진(2003).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Berk, L. B.(2003). *Child Development*. New York : Allyn & Bacon.
- Biller, A. B.(1969). Father absence, maternal encouragement and sex-role development in kindergarten-age boys. *Child Development*, 40, 47-53.
- Demo, D., & Acock, A.(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5.
- Hetherington, E. M.(1979). Divorce : A child's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851-858.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 of divorce on parents and young children. In M.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Hillsdale, Erlbaum.
- Holloway, S. D., & Reichart-Erickson, M.(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 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9-53.
- Yalom, I.(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3rd Ed.). New 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s.
- Zill, N.(1988). Behavior, achievement, and health problems among children in step-families. In E. Hetherington & J. Arasteh(eds.). *Impact of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 Hillsdale : Erlbaum.

2005년 4월 8일 투고 : 2005년 6월 20일 채택